

미래 지속성장 위해 보험업계가 뭉쳤다... 'ESG 경영' 약속

생·손보업계 사장단, ESG경영 선포 금융권 재무·사회적 가치 실현 맞손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대

보험업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생·손보업계 사장단은 23일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특히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보험사가 함께 모여 기업의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약속했다.

보험업계는 미래성장 엔진인 ESG 경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뿐 아니라 착한기업으로서의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사장단은 ▲소비자·주주·임직원에게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보험의 안전망 역할 제고와 사회공헌을 통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
일자: 2021. 2. 23(화) | 주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앞줄 왼쪽부터)질프라마조 AXA손보 대표이사,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최영우 삼성화재 사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전영욱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김인태 농협생명 사장, 김영만 DB생명 사장 (뒷줄 왼쪽부터)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알버트김 처브라이프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김기환 KB손보 대표이사, 강성수 한화손보 사장,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대표이사, 김동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허정수 KB생명 사장이 'ESG 경영 선포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한 포용적 금융 실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에 동참 ▲에너지 절약, 폐이퍼리스 등 친환경 문화 확산 및 신뢰기반의 금융인재 양성 ▲윤리·준법경영 등을 통한 투명 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등 보험산업의 ESG 경영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직면한 과제들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 환경변화 대응,

신뢰 제고로 진단하고 최근 ESG 확산도 보험산업의 새로운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며 "ESG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위험보장자, ESG 투자 등을 통한 ESG경영의 확산 촉진자, ESG

경영의 실천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기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ESG 경영은 장기산업인 보험산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크다"며 "ESG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까지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트리플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 시대로 바뀌고 있고, 보험업계도 ESG 경영에 대한 참여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손보업계 사장단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 확대의 실천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비대면도 종합상담... 신한銀, 디지털영업 확대 '취임 100일' 김진균 행장, 직원과 공감소통 (Sh수협은행)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디지털 케어 전문 직원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디지털영업부 고객수 150% 증가

신한은행이 디지털영업부를 확대 개편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비대면채널을 가진 디지털 은행으로 바뀌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영업부를 확대해 서울 9개 지역 약 75만여명의 비대면 채널 선호 고객에게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영업부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의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영업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진 비대면 거래 편의성과 전통은행이 가진 전문직원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강점을 결합해 지난해 9월 은행권 최초로 신설됐다.

디지털영업부는 지난 9월 개점 후 5개월 만에 고객수는 150%가 늘었으며, 수신과 여신도 각각 200%, 460%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영업부를 39명 규모 디지털영업 1, 2, 3부로 확대하고, 서울 중부·강남·북부 등 9개 지역 본부 소속 영업점의 최근 1년간 비내점 고객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신한은행

75만여명의 자산관리를 시작한다. 하반기엔 부산, 호남 등 전국 215만여명의 고객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우수한 여수신 종합상담 역량 및 비대면 영업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 전문 직원들을 디지털영업부에 배치해 고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 및 금융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또 디지털영업부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한솔(SOL)에 전용 페이지인 마이케어(My Care)페이지도 신설한다. 고객들은 이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별 맞춤 케어 메시지 ▲유용한 금융 콘텐츠

▲개인별 추천 상품 ▲놓치지 말아야 할 금융 일정 등의 유용한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필요 시 전담직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마이케어 페이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영업부는 고객중심의 디지털 고객 케어 센터로써 신한은행 미래 영업점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성과 검증을 통해 하반기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임직원 중심 가치경영실천

김진균 Sh수협은행장(사진)이 '도전·자존감·행복추구'의 공감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취임 100일을 맞은 김진균 Sh수협은행장은 비전과 경영목표, 경영철학 등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영업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신규 보임 영업점장, 수도권 및 일부 지역본부 부지점장 등과 잇따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행장은 현장 리더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열정과 도전정신', '수협인으로서의 자존감',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 임직원 중심의 가

치경영 실천을 설명했다.

아울러 매주 한두차례씩 점심시간을 활용한 도시락간담회를 연다. 지난 2월 초에는 전남·경남지역 영업점을 찾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행장은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감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협은행에서 꿈과 비전을 실현하고, 스스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銀 脫플라스틱 약속... 고고챌린지 동참

권준학 행장 캠페인 참여

NH농협은행은 권준학행장(사진)이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사회적 확산을 장려하는 '고고챌린지'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조맹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출발한 고고챌린지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메시지를 담아 SNS에 게재해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 행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권 행장은 SNS에 '물티슈 사용 줄이고! 손수건, 친환경 물티슈 사용하고!'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약속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 작은 노력들이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며 "조금 불편하더

라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농협은행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권 행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상곤 한국고직업공제회 이사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명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위기대응에 동참하고자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탈석탄금융을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을 위한 K-R E100 참여와 업무용차량의 전기차 전환, 전기소비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LED 조명교체,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신한생명, 인터넷보험 라인업 강화

'신한인터넷간편한2대건강보험'

신한생명이 비대면 보험 가입 수율을 위한 인터넷보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생명 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무배당 신한인터넷간편한2대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내방 및 대면상담 없이 신

한생명 인터넷채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보험이다.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무배당 신한인터넷간편한2대건강보험'은 고령자나 유병자와 같이 일반심사로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신한생명 인터넷보험 최초로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상품과 일반

심사 상품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입 시점부터 만기시점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납입하는 비갱신형 상품이다. 일반심사형 및 간편심사형 모두 기준에 따라 납입면제혜택을 적용해 노후까지도 유지가 가능하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비대면을 통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계속해서 인터넷보험을 통한 상품라인업을 확대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